

GIST, 학부 조직 개편과 함께 새 도약 다짐

GIST가 2025년을 맞아 학부 조직 개편, IBS 연구단 유치, 거주공간 확대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한다. 임기철 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융합과 혁신을 통해 GIST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과대학	학부·과
정보컴퓨팅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AI융합학과
	반도체공학과
	AI정책전략대학원
자연과학대학	물리·광학과
	화학학과
공과대학	수리과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로봇공학과
생명·의과학	환경·에너지공학과
	생명과학과
융합대학	의생명공학과
	인문사회과학부
-	도전탐색과정
-	융합기술원
-	에너지융합대학원(학과)

자료 제공 = 학사기획실

단과대학 체제, 융합과 전문성을 목표로

GIST는 기존 14개 학부·학과 체제를 올해 4개 단과대학 중심으로 바꾸는 학부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개편은 학문 분야 간 경계를 허물고, 융합 연구와 교육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14개 학부·학과 체제는 ▲정보컴퓨팅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생명·의과학 융합대학 등 4개의 단과대학 중심으로 재편된

다. 각 단과대학은 위와 같은 학부 및 학과로 구성된다. 검토하며 “결론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새롭게 신설된 수리과학과는 AI 관련 학제 간 연구 발전 중심이 될 전망이다.

임기철 총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학제 간 융합과 학부 규모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단과대학 단위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য়ে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비전

GIST는 학부 조직 개편뿐만 아니라 캠퍼스 공간의 변화도 추진 중이다. 2025년 봄, 신진 연구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Young Scientist Building’이 완공될 예정이다. 총 3개 동, 100세대 규모로 구성된 이 건물은 박사후연구원(Post Doctor) 등 젊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여름에는 학술 포럼과 세미나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지원할 ‘커뮤니티라운지’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 공간은 소통과 협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문 조형물도 올해 안에 완공될 계획이다.

IBS 캠퍼스 연구단 유치

GIST는 지난해 IBS(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 연구단 유치에 성공하며 연구 부문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기존의 양

자변환연구단(단장 김유수 교수)에 더해, 새롭게 상대론적 레이저과학연구단과 생명과학 분야 연구단이 추가로 선정되며 총 3개의 IBS 연구단이 GIST에 자리 잡게 됐다.

새롭게 자리잡을 상대론적 레이저과학연구단(단장 김경택 교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레이저 기술을 개발하고, 상대론적 고차조화와 아토초 펄스 생성 및 측정 연구를 수행한다. 생명과학 분야 연구단의 구체적인 연구 분야는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임기철 총장은 “추가로 유치된 두 연구단과 함께 IBS 전용 건물을 마련해 연구 환경을 강화하고, 연구자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GIST는 IBS 연구단 유치 외에도 국가 대형 연구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안진희 교수가 이끄는 AI 기반 중대분자 연구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글로벌선도연구센터(IRC)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신약 개발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IRC 지원사업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초연구 사업으로, GIST는 이를 통해 AI와 화학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에너지공학부가 ‘4단계 두뇌한국(BK) 21’ 교육사업단에 신규 선정되면서 GIST는 IBS 연구단, IRC 지원사업, BK21 사업이라는 국가 3대 대형 연구사업을 모두 운영하게 됐다. 임 총장은 “이들 대형 사업

은 GIST의 연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One Team, GIST’로 향하는 길

또한, GIST는 학부 입학 정원을 350명으로 확대하고 교수 규모를 300명으로 늘리는 ‘Scale Up’ 전략을 통해 대학의 외연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AI영재학교 설립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기반을 다지는 한편, 기술경영경제대학원 설립을 구체화해 지역 산업과 과학기술 기반 혁신 리더 양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임기철 총장은 신년사를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GIST를 응원하고 기대를 거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의미”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을 다하고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GIST 가족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역량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IST 가족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하며 ‘One Team, GIST’라는 구호로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김현균 기자
hyeonyunkim@gm.gist.ac.kr

교내 액화질소탱크, 안전 이상 없나?

지난 10월 자연과학동 근처 액화질소탱크에서 가스 유출과 결빙 현상이 발생했다. 시설운영팀은 정상적 작동 과정이며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액화질소탱크 이상 제보... 팩트는?

지난 10월 지스트신문은 자연과학동 건물 근처 액화질소탱크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탱크 정면 기준 두 번째 기둥 아래에서 흰색 가스가 새어 나오고 있고, 주변 파이프가 얼어 있다”고 전하며,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설운영팀은 해당 상황을 검토하며 “결론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시설운영팀은 제보자가 언급한 흰색 가스와 결빙 현상에 대해 “정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답했다. 탱크 옆에 설치된 기화기는 -196℃의 액체질소를 고압기체로 변환해 실험실에 공급하는 장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온도 차로 인해 기화기 외부에 강한 결로가 형성되며, 공기 중 수증기와 만나 연중 결빙 현상이 나타난다. 시설운영

팀은 “이는 기능상 문제는 없지만 미관상 좋지 않아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액체질소탱크에서 가끔씩 ‘뽀익’ 소리와 함께 가스를 방출하는 현상은 내부 압력을 조정하기 위한 안전밸브 작동으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안전밸브는 이중으로 설치돼 있으며,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밸브가 작동해 안전이 보장된다.

체계적 관리 중이나 안전에 관심 필요

교내 액화질소탱크는 월 1회 교내 자

체 점검과 연 1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시설이 밀집된 교내 환경에서 시설 주변의 이상 징후에 대한 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하는 등, GIST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강권택 기자
gwontak215@gm.gist.ac.kr

기획

GIST 일회용품, 이대로 괜찮나?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 11월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부터 한 달간 광주에서 열린 행사 30곳 중 29곳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했으며, 20곳에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섞어 배출했다. 이에 <지스트신문>에서는 GIST의 일회용품 사용 실태와 해결 방안을 알아봤다.

GIST의 일회용품 사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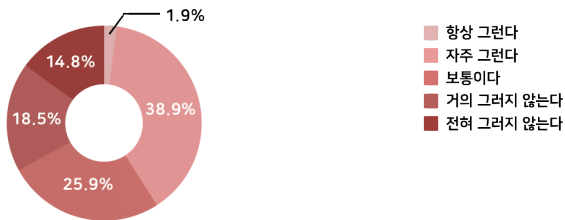
GIST 학사 기숙사 쓰레기장에는 주말마다 거대한 쓰레기 산이 생긴다. 취재 결과 GIST에서 일주일 동안 발생하는 일반 쓰레기는 학사 기숙사 A동과 B동에서 100L 쓰레기 봉지 기준 약 290봉지, 대학동 건물들에서 약 72.5봉지다. 여기에는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도 포함된다. 하지만 상당수가 배달 음식 쓰레기에 해당하며, 음료수가 들어있는 캔, 종이류, 음식물이 묻은 플라스틱 등이 혼합돼 있다. 학사 기숙사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 한 명은 “최대한 (혼합된 쓰레기를) 분류하지만 정해진 시간 내에 모두 끝내기 어려우며, 상당수를 분류하지 못하고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미화원은 “여름철에는 혼합된 음식물 때문에 분류 작업시 위생에도 좋지 않다”라고 설명하며, GIST 학생들에게 음식물을 분류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GIST 구성원 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음식물을 포함한 채로 모든 쓰레기를 한 번에 버리거나 음식물만 분리한 채로 버리는 학생이 60% 이상이었다. 본 조사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12.9%이다. “음식물만 분리한 채 모든 쓰레기를 한 번에 버린다”라는 문항에 “항상 그런다”라고 답변한 인원은 1명, “자주 그런다”는 21명, “보통이다”는 14명으로, 전체의 약 66.7%에 달했다. “음식물을 포함한 채 모두 일반쓰레기에 버린다”에 “항상 그런다,” “자주 그런다,” “보통이다”의 답변을 한 경우는 전체의 약 46.3%이며, 음식물을 따로 버린 후 플라스틱 용기와 같은 큰 일회용기만 분류하는 경우는 전체의 약 72.2%를 차지했다. 항상 음식물을 분리한 후 용기를 씻어 항목별로 분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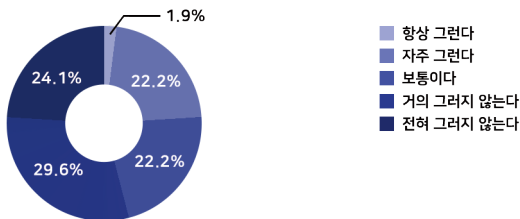
GIST 분류 배출 실태 조사

(GIST 구성원 54명 응답)

■ 일회용품을 사용한 후 음식물만 따로 버린 후 모두 일반쓰레기에 버린다.



■ 일회용품을 사용한 후 음식물을 포함해 모두 일반쓰레기에 버린다.



삽화 = 김수경 기자

다고 답변한 인원은 없었으며, “자주 그런다”라고 밝힌 인원은 약 14.8%에 불과했다. 분류 배출을 항상 정확하게 하지 않는 이유로는 약 51.0%가 “귀찮아서”라고 밝혔으며, 약 9.8%는 “분류 배출 기준을 잘 몰라서”라고 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GIST 구성원은 1주일 동안 일회용품이 포함된 배달 음식을 평균 약 3.4회 소비한다. 배달 음식 이외에 카페 음료수 잔이나 편의점 음료수 등으로 소비하는 일회용품은 1인당 1주일에 평균 약 8.1개다. 2021년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일회용기를 한 번 사용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상당량은 47.2gCO₂e다. 이를 고려하면 1인당 1달에 약 1,085.6gCO₂e를 배출하는 셈이다¹. 이는 30년산 상수리나무 한 그루가 1달 동안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인 1,175g과 맞먹는다. 일회용기가 분류 배출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소각되면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학생 차원의 실천

GIST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분류 배출 비율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움직임이다. 2021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에 의하면 분류 배출을 정확하게 실천하면 연간 인당 88.0kgCO₂e의 이산화탄소상당량을 감축할 수 있다. GIST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는 오염된 재활용품이 대다수

인 등 분류 배출이 제대로 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물질이 묻은 재활용품은 재활용 시설에서 걸러지는데, 이물질이 묻어있는 재활용품이 많다면 수거 과정에서 주변의 다른 재활용품도 오염시킬 수 있다. 더불어, 환경부의 2022년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반입량 및 협잡물량(잔재물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활용 선별장의 쓰레기 중 연간 약 40만 톤의 쓰레기가 오염 등으로 인해 다시 소각장으로 보내진다.

설문조사에서 분류 배출을 항상 정확하게 하지 않는 이유로 약 9.8%가 “분류 배출 기준을 잘 몰라서”라고 답한 만큼, 분류 배출 요령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설문조사 응답자 40% 이상이 모르고 있었다고 밝힌 분류 배출 요령에는 ▲종이류를 버릴 때 플라스틱 표지와 스프링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버린다 ▲영수증, 파쇄지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우유갑 등의 종이팩류는 종이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물질을 모두 제거 후 깨끗이 씻어 버린다 세 가지가 있었다. 이 외에도 플라스틱 용기에 표기된 재활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배출해야 한다.

추가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에 의하면 일회용 배달 용기를 줄이는 것은 연간 인당 1.1kgCO₂e를,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은 연간 인당 3.5kgCO₂e를 감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재생 휴지, 저탄소 제품 등의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음식을 먹을

만큼만 담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교내에서 서로 행동을 점검하며 함께 인식 변화를 도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학교 차원의 움직임

학교의 도움이 필요한 방안도 있다. 분류 배출을 항상 정확하게 하지 않는 이유에 두 번째로 많았던 답변은 약 33.3%를 차지한 “분리수거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였다. 실제로 학사 기숙사에는 분리수거 시설이 항목별로 있지만 연구실이 있는 대학동 건물들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분리수거 시설을 찾기 힘들다. 또한, 비닐류나 종이팩류는 학교 내에 따로 분류해서 버릴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모두 일반쓰레기로 처리된다. 학교에서는 추가적인 분리수거 시설을 마련할 계획에 대해 “현재 추가적인 분리수거 시설 마련 요청이 없어 마련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사회적 차원의 움직임

정부 및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다. 2021년 이로운넷 기사에 따르면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에서 시스템을 잘 설계할 것을 강조하며, “분류 배출하면 모두 재활용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열심히 분류 배출을 한다”라고 했다. 또한, 포장재 사용 규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연대와 네트워킹이 답이다. 각각의 주체들이 자율성과 필요성을 느끼고 순환 경제를 주도하면서 치고 나가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며 개개인 역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일회용품 소비와 분류 배출은 UN에서 발표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2번째인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에 해당하는 문제다. GIST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세계의 목표인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임흥은 기자
im.hongeun@gm.gist.ac.kr

1 이산화탄소상당량(gCO₂e)이란 이산화탄소 및 타 온실가스를 포함한 배출량으로, 타 온실가스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같은 영향 정도의 이산화탄소량(g)으로 환산해 합한 값이다.



제보 및 기고를 기다립니다.

궁금한 일이 있나요? 지스트신문에 취재 요청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자유로운 주제의 기고문 환영합니다!

지스트신문이 학내구성원들의 다양한 제보 및 기고를 기다립니다.

Email) editor@gist.ac.kr
Tel) 062-715-5810
H.P) 010-9550-5902

 지스트신문

 지스트신문

제2학생회관 학식 가격 인상, 그 이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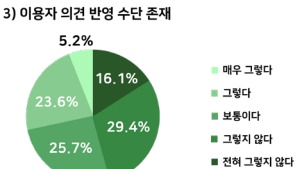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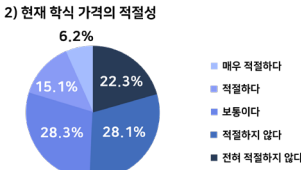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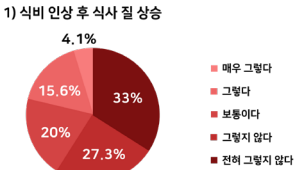
지난 9월 제2학생회관 학생식당 학식 가격을 기존 48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했다. 식당 운영업체 측은 가격 인상 이유로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들었다.

학식 가격 인상, 이용자 여론은?

학식 가격 인상 후 4개월가량 지났다. 이에 <지스트신문>은 대학생, 대학원생 385명을 대상으로 학식 가격 인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식비 인상 후 식사 질 상승 여부에 관한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33%)’, ‘그렇지 않다(27.3%)’, ‘보통이다(20%)’, ‘조금 그렇다(15.6%)’, ‘매우 그렇다(4.2%)’ 순으로 답변했다. 전체적으로 식사 질 상승을 체감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인상된 학식 가격(5500원)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다(28.3%)’, ‘그렇지 않다(28.1%)’, ‘전혀 그렇지 않다(22.3%)’, ‘그렇다(15.1%)’, ‘매우 그렇다(6.2%)’ 순으로 답변했다. 또한 식당 측과 이용자 간 식단 피드백 방안 마련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29.4%)’, ‘보통이다(25.7%)’, ‘그렇다(23.6%)’, ‘전혀 그렇지 않다(16.1%)’, ‘매우 그렇다(5.2%)’ 순으로 답변했다.

지스트 학식 인상 관련 설문조사 (385명 응답)



삽화 = 최정은 기자

학식 인상 팩트 체크

학식 가격 인상은 지난 9월 대학생, 대

학원생 총학생회 측 대표 각 1인, 식당 운영업체 관계자 2명으로 구성된 식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식당 운영업체는 지속적인 물가 인상 및 인건비 상승에 현재 식사 품질 및 만족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식과 중·석식의 단가 인상을 요청했다. 이에 식당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진행해 학식의 인상 가격을 1안(현 5500원)과 2안(5800원) 중 1안으로 결정했다. 식당 운영업체는 조식 단가 인상도 요청했으나 반려됐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GIST 구성원들은 학식 인상에 관해 가격 인상 이후 식사 질이 상승한 것이 체감할 수 없고 식당과 이용자 사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건의했다. 이에 GIST 학생식당 운영업체 안태린 점장(이하 안 점장)에게 학식 가격 인상 후 개선점과 이용자와의 소통 방안을 물었다. 안 점장은 가격 인상 후 “(식단에) 선호도 높은 육식 메뉴의 횡수를 증가했고 사이드 메뉴에도 무게감을 주고 있다. 단가에 맞지 않아서 시도하지 못한 메뉴도 새로 시도하고 있

다. 또한 평균 섭취량보다 넉넉하게 양을 잡아도 대체찬이 나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조리량을 증가시켰다”고 답변했다.

식당 이용자와의 소통 방안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익명게시판을 이용했으나 불미스러운 일로 게시판을 철회한 상태이며 현재는 공 색깔을 이용한 만족도 투표함만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투표함을 통해 매일 끼니별로 만족, 보통, 불만족 개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독 만족 혹은 불만족이 높을 때는 메뉴를 확인하며 이용자들의 메뉴 선호도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원활한 소통 방안 마련을 위해 총무팀에서는 식당 운영업체에게 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협조 요청할 것임을 밝혔다.

전민지 기자
jminji79@gm.gist.ac.kr

12.3 비상계엄 선포, GIST 구성원의 목소리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GIST 총학생회는 같은 달 5일 12.3 비상계엄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했고, GIST 교수와 연구자 134명도 지난달 12일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과 그 이후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같은 날 밤 11시 25분 경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사실과 포고령이 발표됐다. 이 포고령에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것, 언론과 출판은 통제 받을 것, 파업 중인 전공의들은 즉시 복귀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으며, 같은 날 오전 4시 26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12월 14일 오후 2시 4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같은 날 오후 5시 재석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이후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공식적



삽화 = 장은우 기자

으로 정지됐다. 지난달 9일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으나, 윤 대통령은 12·12 대국민 담화 이후 공수처의 소환에 불응하고 관저 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14일 오후 2시에 개최된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월권이라 비판하며 반발 입장을 밝혔다. 다음날인 15일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며 조사는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계엄과 관련된 군 수뇌부들의 재판도 또한 이어질 예정이다.

총학, “정부 반민주적 행태 강하게 규탄”

GIST 총학생회는 지난달 5일 지글(Ziggle)과 공식 SNS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총학은 “1980년대 광주 시민이 이뤄낸 민주화에 대한 보상과 대한민국 발전”이라는 GIST 설립 목적을 되새기며 “국민의 요구로 탄생한 GIST 대학 총학생회는 정부의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 더불어, 국민 주권을 훼손한 정부의 빠른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국회에 과학기술인과 대학생들의 말에 경청하기를 촉구해 왔으나 한국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이 단절된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총학은 “꾸준한 소통 이행”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교수·연구자 시국선언문 발표

GIST 교수와 연구자 134인도 12월 12일 “나라의 미래를 선도할 광주과학기술원의 일원으로서, 역사를 통해 피 흘려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의 반헌법적 행위에 침묵하지 않겠다”며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평가하며 “윤석열을 탄핵하고 그의 일당을 일벌백계하여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수호, 법치 질서 확립과 상식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다. 더불어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사태 수습도 강력하게 촉구했다. 긴급 시국선언문은 GIST 포털 시스템 열린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는 기자
ehdms2718@gm.gist.ac.kr

대 학

해외파견 프로그램, R&D 예산 삭감 이후 변화는?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해외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대폭 감소했다. 2023년에는 118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에 비해 2024년은 7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는 예산 삭감으로 30% 감소한 결과다.

Outbound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되나

평균적으로 약 160명 내외의 학생이 매년 Outbound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활용한다. Outbound 프로그램은 해외 인턴 프로그램, SAP (Study Aboard Program), 여름학기 프로그램, Outbound exchange(Mobility Program)를 포함한다. 기간은 여름 또는 겨울 방학 기간 중 6~10주를 기준으로 한다. 지원금은 300~400만 원에 상당한다. SAP는 매년 약 8명의 학생을 GIST와 교환 협정을 맺은 UC 버클리에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 학생은 2,500만 원을 지원받으며 봄학기 동안 UC 버클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후 1월부터 5월까지 총 5개월간 해당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마지막으로 여름학기 프로그램은 2, 3학년 학부생을 해외 대학의 여름학기 수업에 파견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업료, 기숙사비, 식비를 지원한다. 항공료, 비자 신청 수수료, 여행자



삽화 = 김나현 기자

보험을 포함한 개인 비용은 약 45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학생들은 UC 버클리, 보스턴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에 파견돼 각각 8주, 6주, 2주 간의 여름학기 수강 기간을 가진다. 1월 중 신청을 받고 선발 인원은 6월에서 8월 사이에 여름학기를 수강하며, 대학마다 시작 시기는 상이하다. 이 외에도 유럽 및 동남아 등 학생교류 협약을 맺은 해외 대학에 파견되는 Outbound exchange(Mobility Program)도 있다.

해외 대학 프로그램은 국내를 벗어나 해외 우수 대학인 UC 버클리, 보스턴, 케임브리지 대학 등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해당 나라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생들과 수업을 들으며

네트워킹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다. 또한 해외 연구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연구자들과 연구 협력을 하는 등 글로벌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다.

코로나19와 예산 삭감 이후 변화는?

2023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파견이 취소됐던 학생들을 포함해 118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후 2024년에는 예산 삭감으로 파견 인원이 감소해 7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지스트신문〉은 2025년 해외 대학 파견 프로그램의 변화에 대해 대외협력팀 박수연 담당자에게 물었다.

Q. 예산 삭감으로 인원이 줄어든 지금도 4학년까지 해외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2024년에 지원해서 탈락했던 학생 중 현재 4학년인 학생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Q. 예산 삭감 대책으로 학생이 해외 대학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해 인원 수를 늘리는 방안이 언급됐다. 2025년 해외 대학 프로그램에서 실행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A. 학생 파견 프로그램 운영 취지를 고려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Q. 학년별 선발 기준 차등이 있는지 궁금하다.

A. 고학년 우선 선발 등의 기준은 없다

코로나19와 예산 삭감 영향으로 프로그램 참여 인원 변화 이외에 정책상 변화는 없다. 따라서 각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전체 GPA와 영어 성적에 대한 조정은 없다. 오는 2025년 해외 대학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추후 공지될 것이라고 박 담당자는 밝혔다.

김민석 기자
minseokkimug@gm.gist.ac.kr

김유수 교수 GIST 화학과 부임, 양자화학 새로운 기로

지난 24년 9월 1일부로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 양자변환연구단 김유수 단장이 GIST 화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김유수 교수는 한국인 최초 일본 이화학연구소(이하 RIKEN) 수석 과학자로 선정되고 도쿄대 교수직을 맡은 세계적인 석학이다. 20년간 일본에서 연구한 김유수 교수의 부임 동기와 목표를 들어봤다.



사진 = 김유수 교수

김유수 교수는 어떤 연구를 하는가?

김유수 교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주목받는 표면과학 분야 연구자다. 김 교수는 주사터널현미경(STM)을 독자적으로 개조해 고체 물질 표면의 분자 또는 원자가 자극을 받은 후 어

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분광 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단일 분자 내에서 생성되는 광전류를 원자 수준에서 측정하는 연구(《Nature》, 2022), 나노 물질의 전자구조와 광학 물성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정밀한 나노 분광법의 개발(《Science》, 2021) 등의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일본 문부과학성 과학기술 표창(2018)과 일본 화학회 학술상(2019)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개별 자극 종류마다 달라지는 양자상태 간 상호작용을 분자와 원자 수준에서 엄밀히 밝혀낼 수 있는 분광법의 실현에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런 목표를 RIKEN에서 일부 성취한 김 교수는 “물질이 지닌 양자상태의 근본원리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 근본원리를 통해 단순히 상호작용의 결과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상호작용을 계산해 내는 완전한 형태의 분광법을 개발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밀한 나노 분광에서 나아가 ‘극한 나노 분광’을 정립할 것이라는 목표를 드러냈다.

일본에서의 20년 연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배경은?

김유수 교수의 현재 연구 목표는 기후 위기와 기초과학의 관계에 초점이 맞

춰져 있다. 김 교수는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과학은 생존을 위한 학문이란 생각을 갖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김 교수는 격변하는 세계 상황 속에서 기초과학의 역할과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했다. 그가 찾은 답은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변화에 대응하는 응용과학이라면 그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기초과학의 역할이라는 사실이다. 김 교수는 “기초과학이 방법론적인 과학으로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응용 연구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란 것을 깨달았다.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기초과학 발전이 필수적이다”라고 언급하며 본인의 연구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냈다.

일본에서 연구를 오랫동안 이끌어 온 김유수 교수는 기초과학 발전에 있어 자신의 연구 발전뿐만 아니라 후배자 양성을 위해 분야 간 활발한 교류가 이어져야 함을 느꼈다. 김 교수는 연구 자원이 한정된 기초과학 분야 과학자들이 자원 확보를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협력해 발전하는 청사진을 공유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교류를 활성화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구를 폭넓게 공유해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GIST 캠퍼스를 거점으로 하는 IBS 양자변환연구단을 설립해 RIKEN 및 동경대와 교류하면서 두 나라 간 국경을 넘은 연구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양자변환연구단과 RIKEN·동경대 교류

김유수 교수는 연구 교류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 간 수평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RIKEN 및 동경대에서 수평적 연구실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김 교수는 직급에 관계 없이 선배와 후배 연구자가 서로의 연구를 이해하고 유연한하게 피드백을 주고받아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문화를 형성해 왔다. IBS에서는 이를 더욱 폭넓게 적용해 RIKEN 및 동경대 동료 제자 연구원은 물론, GIST 내 타 연구실과 활발한 상호교류가 이뤄지는 기틀을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가 이끄는 IBS 양자변환연구단을 통해 GIST가 양자 기술 및 정밀 측정 분야에서 국제적 연구 교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유림 기자
yourimlee@gm.gist.ac.kr

안전을 위한 준법은 왜 투쟁이 됐나

지난 11월 13일, 광주송정역에서 전국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의 선전전이 시작됐다. “SR 정비차량 부족으로 돌려막기 운행! 열차안전이 위협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든 사람들이 플랫폼으로 향하는 복도에 줄지어 있었다. 14일 저녁, 필자는 그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불과 10분 뒤 SRT에 올라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자리에서 기자 명함을 건네고 인터뷰를 요청했다. 며칠 뒤 호남차량정비단에 직접 방문할 수 있었다.

SRT, 반년간 11건 고장... ‘가벼운 고장 아니다’

호남차량정비단은 GIST에서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다. 정비단 앞에 도착하자 거대한 선로를 떠받치는 기둥과 건물들이 보였다. 호남차량정비단 문진도 지부장의 안내에 따라 철도노조 호남고속차량지부실로 들어갔다. 칸막이가 세워진 작은 휴게 공간에 컴퓨터 한 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파와 탁자 정도가 있었다. 자리에 앉아 관련 자료를 받았다. 종이를 넘기자 ‘24년 6월 이후 최근까지 고장이 총 11건 발생’, ‘정비편성 축소’, ‘업무외주화’, ‘무리한 운행’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다. 간략화된 철도노조 요구사항과 준법투쟁으로 인한 영향을 주로 다루던 기존 뉴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야기였다.

“2015년도에 SRT가 생긴 건 KTX와 경쟁시켜 보다 질 좋은 철도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 지부장은 2000년대부터 민영화에 맞서왔음을 밝히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2005년 KTX가 개통한 이래 철도 민영화 시도는 지속됐다.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이란 취지로 주식회사 SR을 출범, 새로운 고속철도 운영사가 등장했다. 문 지부장은 “SR이 22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12편성은 코레일에서 대여해주고, 유지 보수 같은 정비도 코레일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SR차량에서 주요 부품 고장이 11건이나 발생했다”라며 본격적으로 안전 문제를 언급했다. 문 지부장은 원래도 고장이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주요 부품(축상베어링, 모터감속기, 트리포드 등)에 문제가 생긴 것은 심각한 사안으로, 대책 마련 필요성을 느껴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게 준법투쟁 이유라고도 덧붙였다.

무리한 운행과 정비 외주화, 지금껏 운이 좋았을 뿐

“열차를 너무 많이 돌리고 있어요. 원



하부 신호 장치가 손상된 모습이다.

래 고속차량은 정비편성을 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비할 때가 됐는데도 그걸 충분히 안 하고 그냥 최대한 많이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본디 고속열차는 정비편성을 운영해 정비 매뉴얼에 따라 각 부품을 일정 주기마다 점검하고 수리해야 한다. 그런데 2023년 9월 SRT 운행노선 확대에 따라 SRT의 정비편성이 축소됐다. 이에 따라 부품중정비주기(TBO)를 지킬 수 없게 됐다는 것이 문 지부장의 설명이다. 제때 정비를 받지 못하니 고장이 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SR은 야간에도 부품주기교환작업을 추가 시행했다. 하지만 이는 정비단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졌고, 충분치도 않았다.

더 큰 문제는 SR이 주요 부품의 정비를 외주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문 지부장은 말했다. 고속차량의 부품은 대체로 수입품으로 매우 고가다. 물론 최근 개발되는 고속차량들은 국내 기술의 비율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전부터 운행된, 즉 대부분 열차의 주요 부품은 여전히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정비와 교체에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간다. SR은 이 비용을 절감하고 열차를 빠르게 운행하기 위해 주요 부품 수선을 외주화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 외주화가 잦은 고장의 주된 원인이었다. 외부 업체에서 수선한 부품이 고장을 일으키고 있던 것이다.

“이게 트리포드라고, SR 차량 아래에서 돌아가고 있는 동력전달축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다리에요, 다리. 이게 기차가 시속 300km로 달리는 와중에 떨어져 나간 겁니다. 차량에서 탈락돼서 근처 논밭 어디서 주웠대요. 그렇게 바로 선로 밖으로 떨어지면 다행이지, 선로랑 차량 사이에 낀다고 생각해보세요. 탈선이에요. 재난입니다.”

실제로 사고가 났던 차량의 사진을

보게 됐다. 표면이 긁히고 뜯긴 하부 주행장치, 밀면이 부서져 덜렁거리는 나무 파편. 트리포드가 떨어져 나가며 열차 밀면과 충돌한 결과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정비 현장으로 안내받았다. 뉴스로만 보던 현장이 눈앞에 있었다. 10m는 훌쩍 넘는 것 같은 높은 공간에 묵직한 레일과 철골이 세워져 있었다. KTX와 SR 차량이 세대쯤 세워져 있었고 간간이 직원들이 지나갔다. 문을 하나 지나자 크고 작은 부품들이 줄지어 있었다. 녹이 슬고 부식된 부품들이었다. 아까 사진에서 본 것과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었다. 문 지부장은 이렇게 노후화된 부품들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정비단에서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외부 업체에서 이 작업을 하게 되자 곧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10월 20일의 일이다. 부산행 SRT가 천안아산역에서 1시간 지연됐다. 뉴스에는 ‘동력차 하부 공기압력이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라고 보도됐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없었을 뿐, 이처럼 지연된 열차들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운이 나빴다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였다고 문 지부장은 설명했다.

“외부 업체에게 정비받아 고장난 부품에 대한 책임은 외부 업체가 지긴 했어요. 그런데 인명피해가 안 나서 다행이지, 만약 큰 재난으로 이어졌으면요? 사람이 죽으면 그건 누가 어떻게 책임 집니까?”

고속열차의 사용 연한은 중간 대수선을 거치면 최장 30년이다. 현재 국내 고속열차들은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이미 노후화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경각심이 없을 뿐, 현장의 직원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현장에 있는 우리는 알아요. 이제껏 큰 사고가 없었던 건, 그동안 운이 아주 좋았을 뿐입니다.”

안전을 위한 준법은 왜 투쟁이 됐나

현재 코레일과 SR측은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을 태업으로 공지하고 있다. 문 지부장은 태업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설명을 이었다.

“준법 투쟁은 정해진 매뉴얼을 지켜서 일하는 거예요. 그 정비 매뉴얼은 사측에서 규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지키면 지금 인력으로는 도저히 열차의 운행 스케줄을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무리를 해온 거죠. 이런 상황에서 총원도 안 해주고, 매뉴얼을 지키면 운행 스케줄이 안 맞으니 태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철도공사와 차량본부는 인력효율화계획에 따라 271명분의 인력을 감축하고 외주화를 추진 중이다. 철도노조는 이러한 인력감축 중지와 SRT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부분의 대처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었다고 문 지부장은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시가 정비편성 수정이다. SR은 정비편성을 늘리기 위해 주말에 2량을 붙여 운행하던 열차를 분리해 한 량은 정비단으로 보내고 한 량만 운행했다. 하지만 “이건 전혀 실질적인 해결이 안 된다. 주말에는 정비 직원들도 휴일이고, 주중 정비편성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문 지부장은 비판했다. 노조의 안전 문제 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11월 13일, 광주송정역에서 매일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진행되는 선전전과 준법투쟁이 시작됐다. 12월 5일까지 사측이 협의 의사를 밝힌다면 응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 철도노조의 입장이다.

인터뷰가 끝나고 호남차량정비단을 나오며 뒤를 돌아봤다. 인터뷰를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이곳에 올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의 사전 신호를 알아차릴 수 없다. 무슨 일이 난 뒤에야 경각심을 느낀다면 그 사고는 대체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이제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다.

보 도

STadium, 과기특성대학 화합과 열정의 무대

지난 11월 9일, 이공계특성화대학 연합 체육대회 ‘2024 STadium’이 DGIST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이공계특성화대학 6개교(▲UNIST ▲KAIST ▲GIST ▲DGIST ▲POSTECH ▲KENTECH)가 참여해 스포츠와 문화 공연을 통해 뜨거운 열기를 나눴다. 특히 올해는 작년 KENTECH이 참관 형태로 참가했던 것과 달리 정식으로 대회에 참여해 큰 기대를 모았다.

스포츠와 문화공연 무대에서 활약하다

2024 STadium에서는 총 7개 종목 ▲축구 ▲야구 ▲농구 ▲배드민턴(남복, 여복, 혼복)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LOL)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그 결과 최종 우승은 UNIST가 차지했다. 특히 GIST는 축구와 야구, 배드민턴 남자 복식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여러 종목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다.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정신력이 만든 듀스, 한 곳 차이 아쉬워”

경기 직후 GIST 배드민턴 동아리 ‘배드썸’ 선수 박현솔(화학, 23) 학생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회에 대한 소감과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남자 복식 세 번째 판에서 듀스 상황이 이어지며 압박감과 체력의 한계를 동시에 느꼈다는 선수의 이야기는 치열함을 고스란히 전해줬다. 박 학생은 “세 번째 판 듀스 시점에서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긴장감 때문에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정신력으로 버티며 듀스를 만들어 갔지만, 결국 한 곳 차이로 너무 아쉽게 끝나 버렸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 출전했던 선배님이 졸업하시기 때문에,



삽화 = 박주명 기자

이제는 후배들이 더 많이 배우고 발전해서 앞으로 우승을 만들고 싶다. 올해는 작년보다 점진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정말 우승도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배운 점에 대해서도 깊은 생각을 나눴다. “긴장하지 않고 기술을 정확하게 사용해 득점을 이끌어내는 것과 듀스 같은 치열한 상황에서 압박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다.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다음번에는 꼭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스포츠를 통해 얻은 교훈은 경기장 밖에서도 이어질 중요한 가치를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기 중간중간 이름을 불러주면서 응원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후배들과 선배들 모두 정말 감사했다”며 GIST 학생들의 팀을 위한 응원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밝히며 응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GIST의 문화공연, 열정을 더하다

체육 경기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GIST의 공연 동아리인 ▲도도한 쭈쭈바 ▲휴강익스프레스 ▲막무가내 ▲IGNITION이 무대에 올라 행사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도도한 쭈쭈바’는 이번 공연에서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다. 인터뷰에서 도도한 쭈쭈바의 동장 임수환(전컴, 23)학생은 호시노 겐의 ‘코이’에서 기타 솔로를 연주하고 보컬이 춤추던 때를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았다. 관객의 환호가 정말 감동적이었다며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점이 무대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공연 준비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STadium 무대 리허설 시간 분배 실패로 인해 아무런 준비 없이 무대에 올라야 했던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임 학생은 “긴장하지 않고 평소 하던 대로 무대에 임하려고 노력한 결과 실패 없이 공연을 끝낼 수 있었다”며 동아리원의 노력과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임 학생은 “도도한 쭈쭈바는 제 2학생회관이나 기숙사 앞 공원 등 친숙한 공간에서 공연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낯선 무대에서 공연을 해야 했기 때문

에 무대가 주는 부담감이 달랐다”며 환경이 주는 압박감을 극복하고 무대에 오른 경험이 팀에 큰 성장을 가져다 주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학번 관계없이 모든 멤버들이 친구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했기에 팀원들 간의 유대감도 더 강해졌다고 전했다. 추후에는 클럽나이트를 통해 “스타디움에서 느낀 전율을 신입생들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며 앞으로도 GIST를 대표하는 밴드로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계획임을 알렸다.

GIST, 2024 STadium의 최종 공동 3등을 거머쥘다

최종 우승은 농구, 야구, 배드민턴 남자 복식, 배드민턴 혼성 복식 등 여러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UNIST가 차지했다. GIST는 다양한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강력한 팀워크와 실력을 보여줬고 UNIST(우승), POSTECH(준우승) 다음으로 KAIST와 함께 공동 3등을 거머쥘었다.

이번 STadium은 각 대학의 선수들과 문화 동아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정을 나누고, 교류하는 화합의 장이었다. 스포츠와 문화를 통해 서로의 열정을 확인하고 응원하는 모습은 각 대학의 학생들에게 큰 감동과 추억을 남겼다. 앞으로도 STadium이 학생 간 교류와 스포츠 정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이규서 기자
leegyuseo@gm.gist.ac.kr

쌍암공원 좌측 보도 정비 지연

쌍암공원 좌측 보도 상태가 장기간 개선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집행위원회 대외협력국은 2023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광산구청에 보도 정비 요구 민원을 제기했다.

2023년 말 대외협력국이 시행한 GIST 캠퍼스 및 인근 시설 이용 불편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로 선정된 것은 첨단과기로176번길에 대한 불편함이다. 첨단과기로176번길은 쌍암공원 좌측 보도로 GIST 학생이 생필품 구매, 식사 등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길이다. 대외협력국 내 답사와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도로에서 확인된 문제는 세 가

지다. 먼저 보도블록 노후화와 나무뿌리 및 잡초에 의한 탈착, 열악한 배수 상태다. 두 번째는 대형 차량 주차 금지 지역임에도 장기간 주차된 혹은 방치된 대형 차량에 의한 가로등 광량 차단과 통행 방해다. 쓰레기 투기로 인한 악취도 발생했다. 이외에도 자전거 도로 미설치와 도로변 수목 관리가 언급됐다. 이처럼 첨단과기로176번길 보도는 도보 혹은 자전거로 통행 시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산재한 열악한 상황이었다.

대외협력국은 2023년 5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첨단과기로176번길 보도블록 재포장 및 주변 조경 관리에 대한 민

원을 게시했지만 가장 시급한 보도블록 재포장 공사는 아직이다. 광산구청은 “파손된 보도블록과 제초 작업은 현지 확인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보도블록 교체는 사업비 요청 후 확보된 사업비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GIST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장 겸 대외협력국장 최유진(전컴, 23) 학생(이하 최 국장)은 “답변 이후 도로변의 가로등 1대가 수리됐으며 쓰레기 투기도 점진적으로 줄어 현재 문제가 완화됐다”라고 말했다. 다만 주차 단속은 1달가량 진행된 뒤 지속되지 않았으며 가장 시급한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아직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5월 도보 답사 후 쓰레기 투

기 관련 내용을 제외한 민원을 재제출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최 국장은 민원 관련 사업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한계를 느낄 때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책무를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광산구 안전도시국 건설과에서는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 “사업비 확보 후 2025년부터 부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은지 기자
hej040509@gm.gist.ac.kr

GIST's Digital Shift : From KakaoTalk to Ziggle

In a significant digital shift, GIST transitioned its primary communication platform from KakaoTalk to Ziggle, a student-developed app, on November 18th, 2023. This move encompassed all major student self-government associations, including the GIST Club Union, GIST Culture & Event Committee, IRUM, and the HOUSE dormitory student council. Ziggle, designed by GIST students, aimed to streamline school-related communications by focusing exclusively on academic and campus-related content. This targeted approach sought to create a more organized and efficient information flow within the university community.

Student leaders emphasized that this strategic move centralized campus communications, streamlined announcement processes, and ensured easy access to critical information in one location. By switching from KakaoTalk to Ziggle, students can enjoy the platforms for school communications and numerous services to enhance their university experience.

One of the key components of Ziggle is GISTORY, a community platform where students can access various information, including notices from student self-government associations. This feature has proven particularly valuab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helping them stay connected with campus activities and announcements. Another service integrated into Ziggle is AMS GIST, an application management system that facilitates the selection process for student associations and clubs. This tool has simplified the process of applying to and managing student organizations. GISTALK, a platform where students can evaluate and share their experiences with GIST classes, has also become an integral part of the Ziggle ecosystem. The site provides quantitative evaluations of lectures using intuitive hexagonal radar charts and encourages student participation through a point system. While many students appreciate these integrated features, some still express challenges with the transition.

Behind Ziggle's development is the Information Bureau of the GIST University Student Council, a dedicated team committed to enhancing student life through innovative IT solutions. Their mission is to be "the life of GIST students," creating web services that are primarily helpful to the university community. Beyond Ziggle, the info team manages the 'University Student Facebook Group', a community platform where GIST college students interact and share experiences. The team also hosts Developers Night (DevNight) which is an innovative exchange event developed by the

Autumn Night Ghost. DevNight brings together students, developers, and tech enthusiasts to share knowledge and experiences in the field of software development. This event features two major sessions: a seminar session and a networking session, further demonstrating the Information Bureau's commitment to fostering student engagement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transition has been met with mixed reactions from students. Many appreciate the app's focused nature and integration of various school-related functions. Positive aspects of the Ziggle transition highlighted by students are organization, everything school-related being in one place and the ease to track important announcements and events. An international junior from EECS department said that it is refreshing for her to have all her course information, club activities, and campus events in one place. She further clarified that she feels more connected to what is happening on campus now that all the information is in one place.

However, students also shared significant challenges with the new platform. Some find the shift challenging, citing the need to actively remember to check a new app. Another international student admitted that he is so used to KakaoTalk that he often

forgets to open Ziggle. He mentioned that he has missed a few important announcements due to this reason. Since KakaoTalk was so integrated into student's daily communication suddenly switching to Ziggle took an adjustment period. Many users among the international student body also mentioned difficulty navigating the app and accessing valuable information because most of the features are not available in English. This language barrier has limited Ziggle's effectiveness for non-Korean speakers, making it challenging for them to fully engage with the community and stay updated on on-campus activities.

As GIST navigates this digital transformation, the Ziggle platform represents both an innovative solution and a work in progress. The app's success hinges on its ability to overcome significant challenges, particularly for the international student community. While Ziggle offers promising features like GISTORY, AMS GIST, and GISTALK, its effectiveness is currently limited by language barriers and the steep learning curve for users accustomed to KakaoTalk. The Information Bureau of the Student Council is dedicated to improving student life through technology, but there's still work to be done to ensure that Ziggle meets the needs of GIST's diverse community.

Reporter Mihret Abebe
mihret.abebegm@gist.ac.kr

Festival at GIST 2024: A Mixed Bag of Reactions

The annual Lumière Festival at the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IST) took on a new form this year, combining three events: the Lumière Festival, Culture Night, and the "Gwangju's Got Talent" competition. While the ambitious merger was met with enthusiasm by some, others expressed disappointment over significant changes to the beloved event. Traditionally known for its high-

profile idol performances, the Lumière Festival has attracted large crowds in previous years with acts like fromis_9 in 2022 and Yena Choi in 2023. This year, however, budget constraints limited performances to school clubs, such as Macmoo (the dance club), singing clubs, and the rap club Ignition. The reduced scale left some students feeling due to a reduced budget compared to previous years, performances were limited to school

clubs like Macmoo, singing clubs, and the rap club Ignition, in contrast to previous idol lineups like fromis_9 in 2022 and Yena in 2023. "I really missed the energy and excitement that idols bring to the stage," said Kim Ji-hyun, a third-year student. "The club performances were great, but they didn't have the same pull." The stage itself, relocated to the road near the Natural Science Building, was

smaller and less equipped compared to the expansive open space in front of the library, the usual venue. "The space was cramped, and it felt like we were all squeezed in," noted Ahmed Khan, an international student from Pakistan. <The whole article in the website> Reporter Kudsia Faisal
kudsia19@gm.gist.ac.krr

오피니언

독자기고

발화의 책임

쉽게 믿는 버릇이 있다. 나쁜 버릇이라고 생각한다.

2024년 12월 3일 10시 30분 직전까지만 믿었다. 한국이 민주 사회이며, 특정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피차 기본적인 규칙은 지킬 것을 믿었다. 당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산성 시장을 방문했다. 산성 시장에는 대통령을 보러 온 인파가 가득했다. 인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은 “저희를 믿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그 밤 10시 17분, 대통령은 5분간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속기도, 개회식도 없었다. 회의의 폐회식을 대신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였다. 국무위원 누구도 발언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선관위와 국회에 투입됐다. 23시 04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다. 국회의원들이 상황을 인지하고 국회에 모이기 시작한 것은 계엄 사령관이 임명된 즈음이었다. 23시 30분 경 포고령 1호가 발표됐고, 국회 본회의 개의를 막기 위한 명령이 하달됐다. 00시 07분, 제1공수특전여단과 707 특수임무단이 도착했다. 동시에 당대표와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부대가 운용됐다는 사실은 해엄(解嚴) 이후에야 알려졌다.

2024년 12월 6일 오후 5시에도 난 믿

고 있었다. 성숙한 제도는 개인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었다. 5일 저녁,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정작 6일 오전, 여당은 입장을 바꿔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결의했다. 당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였다. 먼저 진행되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은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다음으로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 표결은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만 통과됐다. 6일 오후 5시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시작됐다. 재석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다. 198명의 동의로 안건은 부결됐다. 국민의 힘 당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의 표결 마친 후 퇴석하기 시작했다. 탄핵 표결의 차례가 됐을 때 자리에 남은 여당 의원은 안철수 의원 한 사람뿐이었다. 7일 한동훈은 탄핵 대신 일종의 내각제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대구시장 홍준표는 해당 계엄 사태를 “해프닝”이라 칭하며 탄핵까지는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대통령을 옹호했다. 전두환 내란 재판 상고심의 인용이었다.

쉽게 믿는 버릇이 있다. 주위의 말마따나 순진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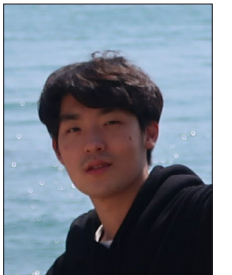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누군가는 잘못을 잘못이라 말해야 한다. 주위에 이 말을 전하던 순간에도 난 지나치게 순진했다. 내 시선에서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보단 원리 원칙의 문제였다. 정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군을 동원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당익을 앞세워 가장 우선해야 할 의회 민주주의의 준칙을 무시한 것도 상식 밖의 일이었다. 하지만 그건 나만의 생각이었는지도 모른다. 대체로 관심이 없었고, 간혹 관심 있는 친구도 직접 참여할 의지를 느끼진 못했다. 나간다고 무엇이 바뀌냐 묻는 말에 선뜻 대답하지 못한 건, 어쩌면 나도 그 말에 조금은 동해서였는지도 모르겠다.

12월 6일 저녁에도, 난 나간다고 무엇이 바뀌진 않는다면 그 말을 떠올리고 있었다. 운집한 사람들 사이로 찬 바람이 불었다. 목덜미가 선득했던 건 꼭 바람 때문만은 아니었다. 표결은 시작됐지만, 107석은 이미 비어 있었다. 옆에선 자주 한숨 소리가 새어 나왔다. 주최 측은 침묵을 채우려 인터뷰를 진행했다. 초등학생, 아주머니, 노인 분이 차례로 나왔다. 난 가벼운 체념을 한 채였고, 그래서 모니터에 GIST 학생의 얼굴이 비쳤을 때 전혀 뜻하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GIST에서 온 친구

가 있을 거라곤 예상을 못 한 까닭이었다. “함께하러 나왔다”고 학생은 말했다. 함께 간 몇 사람, 이미 도착했다고 전해 들은 몇 사람의 면면이 떠오른 것은 왜였을까. 누군가는 잘못을 잘못이라 말해야 한다. 그런 내 믿음이 처음으로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하버마스의 말을 기억한다. “국가 공론장에서 중요한 쟁점을 제기하고 논쟁하는 것, 이것이 지식인의 책무입니다.” 무언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기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믿는다.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하지만 그 의견을 손에 쥔 채 침묵하는 것은, 이곳에서 배우고 싶어 했을 다른 이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우리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 아닐지 묻고 싶다.

쉽게 믿는 버릇이 있다. 이 버릇을 조금 더 가지고 있길 바라는 건 내 실수일까.



이승필
(전편, 18)

포레상담자의 「토닥토닥」

“연구가 어려워요.”

저는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첫 학기를 보내고 있어요. 가족, 친구들의 많은 축하를 받으며 입학했어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교수님이나 선배들은 관련 논문을 찾아 읽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뭘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검색하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내용도 어려워져 무슨 말인지도 당최 모르겠어요. 수업도 못 따라가겠어요. 명색이 석사 과정생인데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힘들다 보니 몸도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석사과정을 마칠 수 있을까요? 자퇴만이 답일까요?

저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박사과정 말년차를 보내고 있는 포레상담자입니다. 많은 고민과 걱정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마음 한켠에 있을 것 같고, 막상 마음처럼 되지 않는 현실에 답답함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꼭 성공해서 가족들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과, 내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현실의 충돌 때문에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기에 님의 고민과 걱정이 더 와 닿는 것 같네요.

우선 조금만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이 어떨까요? 석사과정생이 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부여하고,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석사과정생의 모습을 조금만 뒤로 미뤄 주세요. 지금 당장 그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졸업하는 순간에, 혹은 그것보다 조금 빠르게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숨에 점프해서 어떤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매일 순간순간에 님이 설정해 놓은 방향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님과 선배님들께 조금은 더 의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처음 두발자전거를 타시던 때

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연구가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더라도 방법만 제대로 잡히면 그 이후는 님이 바라는 대로 어떤 연구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해내야 한다는 본인의 독립심과 책임감이 오히려 독립적인 연구의 시작을 늦추고 본인을 상처 입히고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님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사실 님이 큰 이상을 가진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학생이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큰 이상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상

과 현실의 충돌에 크게 고민하게 되고,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일수록 혼자 온몸으로 그런 충돌을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 상처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님은 훌륭한 석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석사과정에서 내가 너무 다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과 건강을 조금 더 잘 보살펴 주시고,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과 함께 나아가갈 사람들을 찾아 함께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상담자: 망고빙수
(최윤호(융합, 통합과정), 포레상담자 1기)



지스트신문

2016년 4월 11일 창간

발행인 임기철

주 간 홍성민 편집장 김도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LG도서관 102호 GIST신문사

전화 062-715-5810

이메일 editor@gist.ac.kr 웹사이트 gistnews.co.kr

페이스북 facebook.com/Gistsinmoon

인스타그램 @gistnews_official